지난 몇 년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올해 대부분 입학정원을 채웠다. 더욱이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모두 충원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월됐던 모집인원 중 상당수를 추가로 선발했다.

4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 신입생 등록 결과, 지난해 93.4%의 충원율을 보였던 나주 동신대의 경우 1천720명 정원에 2천38명이 등록했다. 올 입학정원 1천720명을 모두 충원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당해연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이월·누적된 모집인원 중 318명을 추가 선발한 것이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 "올핸 입학정원 채웠어요"

재수 기피로 충원율 증가…최근 몇년새 못채운 인원도 추가 선발

지난해 92.5%의 충원율을 기록했던 호남대도 1천888명 정원에 1천980명이, 광주대도 1천490명 정원에 1천905명이 등록해 그동안 '멍에'처럼 따라다니던 미충원 인원 중 일부를 털어냈다.

이월분 모집을 하지 않은 광주여대도 1천10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광주여대는 지난해 89.5%의 충원율 기록했다. 전남대도 98.6%의 충원율을 보여 지난해 9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지난해 99%의 충원율을 보인 조선대도 올 입학정원을 모두 채우고 미충원으로 이월된 모집인원 중 일부를 추가 선발했다.

이처럼 지역 주요 대학 충원율이 크게 향상된 것은 무엇보다 대학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정원을 줄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주 동신대의 경우 한때 2천300명이었으나 2004년 1천950명으로 준 데 이어 2005년부터 1천72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전남대가 2006학년도 입학 정원을 전년 대비 12% 줄이는 등 지역 내 상위권 대학의 정원 감소로 인해 중·하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이동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줄어들던 학령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변화로 학생들이 재수를 기피한 점도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신입생 모집이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한 시름 놨다"며 "대학마다 올 신입생 충원율이 크게 올라 입시 관계자는 물론 대학 구성원 모두가 크게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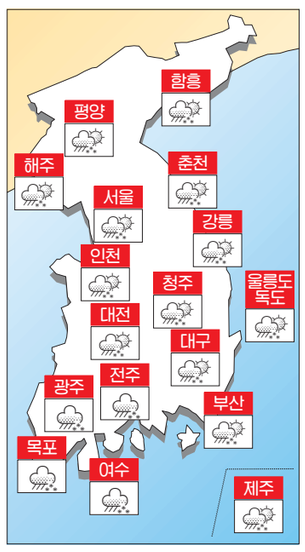
바람에 옷깃 세우고

비나 눈이 온 뒤 추워지겠다.

3월 5일 (음 1월 16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한 두차례 비/눈	4~5℃
목 포	한 두차례 비/눈	4~4℃
여 수	한 두차례 비/눈	7~7℃
완 도	한 두차례 비/눈	5~6℃
구 례	한 두차례 비/눈	4~4℃
해 남	한 두차례 비/눈	4~5℃
장 흥	한 두차례 비/눈	4~5℃
고 흥	한 두차례 비/눈	7~7℃
순 천	한 두차례 비/눈	4~4℃
영 광	한 두차례 비/눈	4~5℃
진 도	한 두차례 비/눈	4~5℃
전 주	한 두차례 비/눈	4~4℃
남 원	한 두차례 비/눈	4~4℃
정 읍	한 두차례 비/눈	3~4℃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4.0~6.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3.0~4.0m
먼바다=남서~북동풍 파고 3.0~5.0m

목 포 밀물 03:02 15:26 썰물 08:20 20:42
여 수 밀물 10:08 22:18 썰물 03:49 16:09

▲해뜸 06:58 ▲해짐 18:31 ▲달뜸 19:46 ▲달짐 07: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 씨						
최저/최고	-3/3	-4/6	-3/8	-2/12	2/9	1/10

07학번 새내기 "취업준비 최우선"

취업포털 '커리어' 설문

갓 대학에 입학한 '07학번' 새내기들은 '취업 준비'를 대학 생활 최우선 활동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최근 4년제 대학 1학년생 606명을 상대로 '대학생활 4년간 가장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가장 많은 21.3%가 '취업준비'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학과공부'가 19.6%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여행'(13.7%), '어학연수'(13.2%), '동아리 활동'(8.9%), '미팅 · 소개팅'(6.3%), '아르바이트'(5.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로는 응답자의 41.3%가 '3학년'이라고 답했으나, '2학년'(18.8%), '1학년'(15.6%) 등 저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답도 비교적 많았다.

'성공적인 취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3%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원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것'(16.9%), '대기업·공기업 등에 입사'(13.3%), '백수기간 없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6.4%)이라는 대답 순이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어디로 가나…"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의 '외국인 쉼터'에서 생활해 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쉼터 폐쇄를 앞두고 거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남공단 '외국인 쉼터' 폐쇄

재정난으로…근로자 20여명 갈 곳 잃어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내 '외국인 쉼터'의 폐쇄가 결정돼 이곳에 거주하던 2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

센터 측은 광산구 옥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하남공단 내 문화센터는 폐쇄해 한국어 수업시에만 개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쉼터는 24시간 개방돼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왔다.

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천영 목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이후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01년 1월 개설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는 임금체불·산업재해·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를 해왔다. 센터 운영은 후원에 의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후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 목사는 "쉼터 내 노동자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임금체불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재해 후 버려지다시피 이곳에 온 경우도 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쉼터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병 200여명 식중독

1군사령부 역학 조사

육군 제1 야전군 사령부는 예하 부대 장병 20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1군사령부는 지난 3일 오후부터 일부 장병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해 이 가운데 상태가 심한 15명을 이날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국군원주병원 등 3개 병원에 후송해 치료중이라고 덧붙였다.

1군사령부는 나머지 장병들의 경우 증세가 경미해 각각 부대 의무실과 생활관에서 격리 관찰 및 치료를 받게 했다. /연합뉴스

고교 '매체 언어' 과목 신설

2012년부터…인터넷·언론 등 특수 언어 다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인터넷 언어'와 언론, 영화, TV 드라마 등의 특수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언어 과목이 2012년부터 고등학교에 신설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6개로 구성된 기존의 고교 2, 3학년 국어 선택과목에 매체언어를 추가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소리와 영상이 가미된 입체적인 매체까지 등장해 개인의 여가활동은 물론, 정치와 사회, 경제 분야 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매체 교육이 거의 없어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업은 뉴스나 칼럼, 광고와 사진, 기획물, 영상물, 대중가요, 사이버 문학, 만화, 오락물 등이 어떻게 대중문화를 형성하는지를 소개하고 이들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역할 등을 강의나 토론, 과제 수행 등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진행된다. /연합뉴스

▲매체 = 사람들이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때 활용하는 것. 책과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포괄한다.

자녀 이름 출생신고 주의하세요

인명용 한자 아니면 호적에 올릴수 없어

출산 전부터 고르고 골라 지은 자녀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법원은 4일 호적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 다섯 자 초과 안 되고 발음 불편해도 안돼=호적법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

우선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지은 이름도 호적에 올릴 때 거부될 수 있다.

◇ 어떤 단어 추가됐나=이번 규칙 개정으로 우리 나라의 인명용 한자는 5천151자가 됐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천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면서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했다.

인명용 한자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전자민원센터→호적→호적신고→인명용 한자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한자 중에는 랑(火변+良 : 밝다), 야(野)의 옛글자인 야(林+흙土 받침), 행(水변+幸 : 기운)자 등 민원 건의가 있었던 글자들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주간 안전사고 지수' 광역 단체별로 발표

소방방재청은 4일 "'주간 안전사고 예보제'를 도입해 5일부터 각 광역단체별로 주간 안전사고 지수를 안전사고 유형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대상 안전사고 유형은 화재, 승강기, 농기계, 추락, 물놀이, 기계, 산악, 폭발, 붕괴, 어린이 놀이기구 등 모두 10개다.

예보지수는 과거 3년(2003~2005년) 동안 주간단위로 발생한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주간단위의 안전사고를 100으로 기준해 책정되는데 '화재 60'이라면 이번주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60%에 달한다는 의미다.

소방방재청은 3월 둘째주(5~11일) 화재 지수가 전남·전북은 40이라고 예보했다.

어린이 놀이기구 위험지수는 광주 30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